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02)

제3부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0 (4)108여단 주둔지-(1)세계유산 거문오름 일대
일본군 옥쇄작전 중심무대 거문오름

입력 : 2008. 05.15. 00:00:00



▲거문오름 사면 8부능선 지점에서 최근 새롭게 확인된 일본군 갱도진지. /사진=이승철기자

분화구 내부·오름사면 갱도진지 10여곳 확인 일군 108여단 사령부 병력 주둔... 요새 구축

세계유산지구로 등재된 거문오름(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번지 일대·표고 456.6m)은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주둔 일본군의 요새다. 거문오름은 제주 동부지역의 용암동굴을 탄생시킨 화산지질학적 가치와 다양한 식생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그에 비해 이곳이 제주근대사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의 하나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시기 이 일대는 일본군의 최후의 옥쇄작전을 위한 유격전의 중심 무대로 이용됐다. 취재팀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거문오름 및 주변 일대 탐사와 당시 군사지도 등을 통해 이러한 역사현장을 확인했다. 탐사를 통해 확인된 갱도진지는 거문오름에서만 10여 곳에 이른다.

거문오름은 전체적으로는 말굽형 분화구를 가졌지만 그 내부에 조그만 알오름이 솟아있는 복합형 화산체다. 분화구 내부에서 확인되는 갱도진지는 모두 6곳으로 알오름 사면을 뚫고 만들

어져 있다. 길이는 각각 15m 내외의 직선형 구조를 보여준다. 갯도진지 폭은 1백40cm, 높이는 2백cm 내외로, 10여m 안팎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뚫려 있다. 갯도진지는 현무암반을 뚫었지만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균열이 심해 무너지는 등 훼손된 상태다.

갯도 바닥의 떨어진 돌 틈에서는 철제 꺾쇠 10여개가 확인됐다. 꺾쇠는 당시 갯도내부에서 갯목들을 고정시키거나 연결시키는데 사용됐던 것들이다. 나무에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 60여년 전 갯도진지 구축상황을 엿 볼 수 있다.

갯도진지 앞에는 많은 석축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무암을 켜켜이 쌓아올린 석축은 이끼가 자라면서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이러한 석축흔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거문오름 분화구 내부에 구축된 갱도진지를 조사하는 취재팀(사진 위). 당시 사용했던 꺾쇠가 갱도바닥에 노출돼 있다.

이 일대는 예전 솥을 굽던 솥가마터와 초막을 지었던 돌담흔적 등이 남아있지만 상당수는 일본군 주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분화구내 갱도는 일본군의 군수물자 등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추정된다. 오름 분화구에는 병참도로 흔적도 볼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일본군 대부분 병력의 주둔지는 오름 외부의 널따른 개활지다.

거문오름에서는 분화구 내부 뿐 아니라 오름 능선에서도 갱도진지가 확인된다. 그 가운데서도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분화구 안쪽 사면 8부 능선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취재팀은 최근 탐사를 통해 길이가 각각 60여m에 이르는 갱도 2곳이 새로 발견했다. 거문오름 갱도진지 가운데는 가장 긴 것이다. 폭과 높이는 각각 80cm, 1백70cm 정도 된다. 한 사람이 걸어도 다니기에도 공간이 좁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곳의 갯도는 분화구 내부의 것과는 달리 스킨리아(scoria)층을 뚫은 형태다. 갯도진지 2곳은 내부에 별다른 공간을 만들어놓지 않았다. 이는 상시 병력주둔용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정상부를 향해 뚫려 있으나 관통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갯도 내부에는 정상부와 관통하려고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정상부에는 수직굴 흔적이 남아있다. 이로 미뤄보면 정상부와 연계한 통로로 생각할 수 있다.

갯도진지 입구에서는 구좌지역 오름군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 성산일출봉과 서우봉까지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지닌 곳이다. 성산일출봉과 서우봉에도 일본 해군의 자살특공정진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에는 이 일대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1945년 '결7호작전' 당시를 보여주는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에는 거문오름 일대가 108여단 사령부로 표시돼 있다. 108여단은 유격전에 대비한 부대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군의 또다른 군사지도인 '제주도병력기초배비요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제주 동부지역의 유격진지대로 표시돼 있다. 그 가운데서도 거문오름 일대와 분화구 내부는 외부의 관측이나 직사화기, 또는 공중폭격으로부터도 완벽히 엄폐, 은폐되는 천혜의 주변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이 결국은 일본군이 거문오름 일대를 주목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세계자연유산의 핵심공간인 거문오름 일대가 일본군 108여단 병력 주둔지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군사시설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포커스] 6천여 병력 동부지역 일대 주둔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주둔 일본군 최고지휘부는 제58군이다. 58군은 그 예하에 96사단, 111사단, 121사단과 108여단 등 3개 사단 1개 여단으로 편성됐다. 108여단은 주로 어디에 주둔했을까. 바로 제주 동부지역에 집중 배치됐다.

스이(翠)부대라 불린 108여단은 총 병력이 6천여 명에 이른다. 여단장은 히라오카 츠토무(平岡力) 소장으로서 1945년 4월16~17일 사이 제주에 진출했다. 108여단은 유격전을 주요임무로 했다. 제주 동부지역은 오름군이 가장 밀집된 곳이다. 또한 연합군의 유력한 상륙예상지점인 제주서남부와 대칭되는 지점이다. 후방에서 유격전을 벌이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8여단이 제주 도착부터 동부지역에 배치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도착 즉시 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일대에 배치된다. 이어 1945년 6월 중순이 되면 제주 동부지역으로 이동 배치된다. 조천읍 함덕을 경계로 구좌 성산 표선 남원일대가 해당된다. 108여단 일부 병력은 태평양전쟁이 일본군의 패전으로 치달을 무렵인 1945년 7월 말쯤에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부근으로 이동, 서부지역에서의 결전에 대비한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